

이정후, MLB 데뷔 첫 연타석 홈런

양키스전 역전승 이끌어

메이저리그(MLB)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의 이정후가 양키스타디움에서 연타석 홈런을 쏘아올리며 팀의 역전승을 견인했다.

이정후는 14일(한국 시간) 미국 뉴욕 주 양키스타디움에서 벌어진 2025 MLB 뉴욕 양키스와의 원정 경기에서 3번 타자 중견수로 선발 출전, 4회와 6회 연타석 홈런을 날리는 등 3타수 2안타 4타점 2득점으로 맹활약했다.

샌프란시스코의 5-4 역전승을 이끄는 활약이었다. 팀의 5득점 중 혼자 4타점을 올리며 승리의 일등 공신이 됐다.

지난해 미국 진출 후 첫 뉴욕 원정에서 강렬한 인상을 남겼다. 양키스와의 3연전서 홈런 3방을 포함해 9타수 4안타, 7타점을 올리며 맹타를 휘둘렀다.

지난 12일 양키스와의 3연전 첫 경기에서 시즌 마수잡이 홈런을 쏘아올린 이정후는 전날 경기에서 2루타를 때려냈고, 이날은 홈런 두 방을 몰아쳤다.

경기 후 MLB닷컴은 경기 최우수선수(MVP) 격인 '플레이어 오브 더 게임'에 이정후를 선정했다.

이정후는 1회초 첫 타석에서 잘 맞은 타구가 중견수 정면으로 향하면서 발타로 물러났다.

그의 방망이는 이후 타석에서 날카롭게 돌아갔다.

샌프란시스코가 0-3으로 끌려가던 4회초 1사 주자 없는 상황에 타석에 들어선 이정후는 양키스 좌완 선발 투수 카를로스 로돈을 상대로 우중월 솔로 홈런을 터뜨렸다.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의 이정후가 13일(현지 시간) 미국 뉴욕 양키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5 메이저리그(MLB) 뉴욕 양키스와의 경기 6회 초 3점 홈런을 친 후 기뻐하고 있다. 이정후는 4회에 이어 연타석 홈런을 기록하며, 3타수 2안타 4타점 2득점 1볼넷의 활약으로 팀의 5-4 승리를 이끌었다.

이정후는 풀카운트에서 로돈의 6구째 스트라이크존 한복판 슬라이더를 잡아당겼다. 타구는 시속 103.2마일(약 166.1km)로 날아갔다. 비거리리는 123.7m였다.

방망이가 돌아오른 이정후는 6회 역전을 이끄는 홈런까지 쏘아올렸다.

1-3으로 끌려가던 샌프란시스코는 6회초 크리스티안 코스의 내야안타와 윌리 아다메스의 볼넷으로 1사 1, 2루

의 찬스를 일켰다.

뒤이어 타석에 들어선 이정후는 로돈의 5구째 가운데 높은 시속 81.7마일(약 131.5km) 커브를 노려쳐 우중간 담장을 넘기는 역전 3점포를 작렬했다.

지난해 MLB에 진출한 이정후가 한 경기에서 2개 이상의 홈런을 날린 것은 이날이 처음이다.

이정후의 홈런으로 역전에 성공한

샌프란시스코는 7회초 상대 실책으로 1점을 추가해 5-4로 이겼다.

샌프란시스코는 양키스와의 이번 3연전을 2승 1패로 마쳤다. 샌프란시스코가 양키스 원정을 워닝 시리즈로 마친 것은 인터리그가 도입된 2002년 이래 처음이다.

쾌조의 타격감을 자랑한 이정후는 15일 필라델피아 필리스와의 원정 경기에 나선다. /뉴시스

순창군청 소프트테니스 국가대표 선발 '쾌거'

윤형욱·김병국, 최종 선발전서 복식 우승

순창군청 소속 소프트테니스팀의 윤형욱 선수와 김병국 선수가 '2025 소프트테니스 국가대표 최종 선발전'에서 탁월한 기량을 선보이며 국가대표로 선발되는 쾌거를 이뤘다.

이번 선발전은 4월 5일부터 13일까지 진행되었으며, 전국에서 모인 최정예 선수들이 국가대표 자리를 두고 치열한 경쟁을 벌였다. 윤형욱·김병국 선수는 복식 부문에서 뛰어난 조직력과 안정된 경기 운영을 바탕으로 복식 부문 최종 2위에 올라 당당히 국가대표에 이름을 올렸다.

이번 선발로 윤형욱 선수는 2022년, 2023년에 이어 세 번째 국가대표로 선발되는 영예를 안았으며, 김병국 선수는 2023년 이후 두 번째로 태극마크를 달게 되었다.

특히, 두 선수는 지난 제19회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함께 출전해 단체전 동메달을 획득한 바 있는 대표적인 소프트테니스 '황금 콤비'로, 이번 선발전에서도 한 치의 빈틈 없는 호흡과 뛰어난 기량으로 대표 선발의 영광을 거머쥐었다.

윤형욱·김병국 선수의 이번 국가대표 선발은 순창군청 소프트테



순창군청 소프트테니스팀 윤형욱(사진 왼쪽) 선수와 김병국 선수.

(사진=순창군청 제공)

니스팀의 뛰어난 실력과 조직력, 그리고 지속적인 선수 육성 시스템의 성과를 전국적으로 입증하는 계기가 되었다. 순창군청 소프트테니스팀은 다수의 우수 선수를 배출해 오며 '소프트테니스 명가'로서의 위상을 견고히 해나가고 있다.

최영일 순창군수는 "우리 순창군청 소속 선수들이 국가대표에 선발되었다는 소식에 매우 기쁘고 자랑스롭다"면서, "윤형욱·김병국 선수의 선전은 순창군민 모두에게 자긍심을 심어주는 쾌거이며, 순창 체육의 위상을 더욱 드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순창=이양원 기자

개인방역수칙 생활화, 감염병 예방 지름길

K리그1 본격 가세... 코리아컵 3라운드

내일 전국 12개 구장서

전북현대, 안산과 맞붙

2025 하나은행 코리아컵 3라운드 경기가 오는 16일 전국 12개 구장에서 열린다.

코리아컵은 프로와 아마추어를 총망라해 한국 축구의 챔피언을 가리는 토너먼트 대회다.

지난 1996년 'FA컵'으로 창설된 뒤 작년부터 한국을 대표하는 축구 대회라는 의미를 담아 '코리아컵'으로 명칭이 변경됐다.

3라운드에는 지난 2라운드에서 승리한 16개 팀과 프로축구 K리그1 8개 팀까지 총 24개 팀이 나선다.

이번에 합류한 K리그1 팀은 대전하나시티즌, 전북 현대, FC안양, 대구FC,

수원FC, 광주FC, 제주SK, 김천 상무다.

승리한 12개 팀은 4라운드(16강)에 진출하며, '디펜딩 챔피언' 포항 스틸러스를 비롯해 강원FC, FC서울, 울산 HD까지 K리그1 4개 팀이 더해 16강 대진이 완성된다.

K리그1 팀과 K리그2 팀간 자존심 대결이 기대된다.

전북은 16일 오후 7시 전주월드컵경기장에서 안산 그리너스(K리그2)와 맞붙으며, 같은 시간 김천은 김천종합운동장에서 수원 삼성(K리그2)과 16강 진출 티켓을 다툰다.

특히 16일 오후 7시 30분 부천종합운동장에서 예정된 부천FC1905(K리그2) 대 제주의 맞대결이 이목을 사로잡는다.

과거 연고 이전 문제로 얽힌 두 팀

이 약 5년 만에 처음 서로를 마주한다.

부천과 제주는 2020시즌 K리그2에서 세 차례 맞붙었지만, 당시엔 코로나19에 따른 여파로 무관중 경기가 진행됐다.

즉 두 팀이 관중 앞에서 맞붙는 첫 맞대결로 많은 기대를 받고 있다.

K3리그, K4리그 소속 팀들의 반란이 계속될 수 있을지도 관심이다.

지난 2라운드에서는 16경기 중 7경기에서 하위리그 팀이 상위리그 팀을 잡는 '자이언트 킬링'이 연출됐다.

부산교통공사(K3리그)는 수원FC, 평창 유나이티드(K4리그)는 인천 유나이티드(K리그2), 세종SA축구단(K4리그)은 안양을 상대로 또 다른 기적을 꿈꾼다.

/뉴시스



자화상 II 130x162cm 한지, 오일파스텔 2024

The 17th Solo Exhibition by Choi Ji-Young

空과圓

2025. 4. 15화 - 4. 20일

사용자 공유공간 PLAN C

55042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은행로 30(동학혁명기념관 옆)
관람시간 : PM. 02:00-07:00